



정부,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 대책' 확정 발표

- 양분총량제 도입 계획
-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및 내년 하반기 화학 비료 보조 전면 중단

농림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13년까지 2조1천35억원을 투자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축분뇨 발생량 감축 및 친환경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05~'06년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하고, 양분총량제 추진효과에 따라 2011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 검토중에 있다.

양분총량제는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사용량이 작물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양분을 감축하는 것으로 매년 농경지 비료성분 모니터링을 거쳐 2년마다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양분 초과지역은 신규입지를 제한하거나 이전을 유

도하는 방법으로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처리유통단계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이용 확대와 경종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축분뇨 자원화 시설설치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그밖에 퇴·액비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에 '가축분퇴비' 신설 및 액비 공정규격을 개정하고, 80억원 지원의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향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2010년까지 675억원/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는 2005년 하반기부터 중단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한 현행 규제 및 관리중심의 제도를 가축분뇨 이용촉진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키로 했으며, 지역별 사육두수, 비료공급 실태파악 등을 위한 축산환경 모니터링체계 구축, 환경관련자재 평가 정보 제공, 자원순환형 농업기술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대책 등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가축밀집사육지역 해소 시범사업 추진

- 종돈장 등 5개소 농가이전 사업 시범 실시

농림부는 가축밀집지역을 해소키 위해 밀집 사육 지역의 축사이전 지원 시범사업 후 검증된 친환경 축사에 대해 농업 진흥지역 내 설치가 용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는 가축사육환경 개선대책(안)에 가축밀집사육지역 내 종돈장 2개소 및 양돈장, 양계장, 종계장 등 각 1개소 등 5개소를 농가이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개소당 12억원을 지원해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친환경 축사 신축시설비 및 진입도로와 용수개발, 전기시설 등 기반 조성비는 물론 기존축사 철거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시범사업 모델경영상과 연구팀'으로 하여금 시범사업 기간의 성과를 평가해 경제성이 있을 경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부,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급 강화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 검토 추진중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활동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의 검사·주사·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차등 지급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의 평가항목에 가축의 검사·주사

등 명령 이행여부를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한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100% 지급기준을 현행 4개 평가항목에서 5개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로 조정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80% 지급기준을 현행 2개 이상 평가항목에서 3개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로 조정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한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60% 지급기준을 1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2개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로 증가시켜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급을 강화시키는 개정 시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항생제 등 항균물질 사용절감방안 마련' 적극 추진

- 항생제 사용절감방안 및 건강증진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운영

농림부는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생제 등 항균물질 사용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항생제 등 항균물질의 오·남용에 따른 식육 중 잔류 문제 및 내성균 출현문제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에 따라 항생제 대체물질인 유기산 및 생균제, 비특이면역증강제, 면역활성증강물질, 대사성물질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시도, 수의·축산업계, 생산자단체 등 관계전문가들과 10월 25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절감대책 회의'를 열고 수의사와 축산전문가, 축산업계 등 20~3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생제 사용절감방안 및 건강증진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키로 했다.

축발기금 폐지, 조직적 반대운동 전개키로

- 축산단체장, 국회·정당·청와대 등 방문 폐지 반대 건의문 전달

농업관련 단체장들은 10월 28일 농단협 사무실에서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농정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단체장들은 허상만 농림부장관에게 최근 큰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의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허상만 농림부 장관도 축산발전기금의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본회 등 농업관련 단체장들은 11월 3일 국회와 각 정당, 청와대를 방문하고 축산발전기금의 폐지와 관련한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농민들의 출발기금 폐지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축산관련단체장들은 건의문에서 축발기금이 정부의 농안기금과 통합시 축산 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농산물 가격 안정사업과 축산물 수급조절사업은 사업 내용 전반에 걸쳐 유사성이 없는 이질적 분야로 두 기금을 통합운용하는 것은 기금정비 본연의 목적인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농안기금과 축발기금을 각각 별도계정으로 운용하는 통합은 단순히 총 기금 수만 줄이는 효과로 현재의 상태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축방역종합대책 계획 수립 후 실천이 중요”

- 가축방역종합대책 세부 시행계획 등 협의

지난 8월 25일 국무총리실에서 확정·발표한 ‘가축방역종합대책’에 이어 세부 시행계획 설명 및 시달과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회, 낙농육우협회, 농협, 방역본부 등 관련업계 담당자들은 10월 28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가축방역종합대책 추진상황 제1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 시행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본회 최영열 회장은 “가축방역종합대책 계획이 수립된 후라도 실천이 안되면 무용지물”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개정이 시급하고, 방역을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본부 관계자는 가축방역 기록카드를 전산화할 방침이며, 이와 더불어 농가책임담당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3~4% 인하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인상돼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높이는 요인이 됐던 배합사료 가격이 최근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 등 곡물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각 배합사료 제조업체들이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가 11월 8일 전품목을 4% 인하한데 이어 10일을 전후해 퓨리나는 평균 3.2%를, 대한사료는 3.2~3.5%를 인하했으며, 우성사료가 평균 3~3.5%, 천하제일이

평균 3~3.5%를, CJ가 평균 3.7%, 도드람 B&F가 평균 4%를 인하하는 등 민간배합사료업체의 사료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농협사료와 민간사료업체는 원료가격과 환율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12월에도 추가로 가격인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 연내 사료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 돈열 항체양성률 96.7% 금년 최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9월 비육돈 항체양성률 조사결과 9월 전국의 돈열 항체 양성률이 96.7%에 달해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양성률은 충북이 9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강원·경북이 97.4%, 경기·전북이 97.1%를 기록했다. 한편 충남은 96.6%, 경남 96.1%, 전남 94.7%로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체 80% 미만 지역은 각각 충남 금산, 전남 보성, 경남 밀양 3개 시·군이다. 비육돈 항체 양성률은 2004년 1월 94.4%, 2월 95.2%, 3월 95.7%, 4월 95.3%, 5월 96.1%를 기록했으며, 6월 96.3%, 7월 95.0%, 8월 94.3%에 이어 9월 96.7%로 9월 항체양성률은 가장 높았다.

유행성설사병(PED) 작년보다 감소

농림부가 발표한 9월 가축전염병발생월보에 따르면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전국 1농장에서 60두의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보다는 다소 증가한 수치이나 1월~9월까지의 누계는 43농가 9천55두로 전년 동기 누계 76농가 2만7천790두에 비하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오제스키는 9월 현재까지 누계 15농가 226두로 전년 동기 누계 17농가 290두보다 감소했으며, 돈열은 9월 누계 6농가 501두로 전년 동기 누계 68농가 5천193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수입, 미국·캐나다 등 9개국 시만 가능

앞으로 돼지 수입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9개 국가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외국으로부터 동물 전염성 질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개정 고시했다.

따라서 돼지를 포함한 우제류 동물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 9개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돼지고기 및 육가공품 수입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멕시코, 칠레,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등 19개국만 가능하다.

헝가리·독일·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 벨기에산 돈육은 검역 재개

농림부는 11월 5일 네덜란드의 가축사료 제조업체인 매케인사의 감자사료에서 발암 의심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이 회사 사

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매캐인사의 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등 3개 나라의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통관 중단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이들 국가의 돼지고기·유가공품 공급경로 및 이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든 업체를 추적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이들 국가로부터 이미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돼지고기와 유가공품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산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내렸다.

한편 농림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 검역은 11월 15일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동의 원인이 됐던 감사자료로 인해 폐쇄 조치됐던 벨기에 8개 농장의 돈육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없고 이들 농장의 돈육이 한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져 벨기에산 돈육 등에 대해서는 검역을 재개기로 했다.

칠레산 돈육 수입량 3개월 연속 최대

10월 하순 집계된 돼지고기 수입은 8천513톤으로 지난달 7천737톤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10월까지 총 누계 수입물량은 8만9천374톤인 것으로 나타나 '03년 총 누계 6만790톤보다 2만8천584톤이 증가했다.

농림부의 축산물 수입검역통계 10월 하순 자료에 따르면 냉장이 10월 239톤, 냉동이 8천274톤 수입됐다. 부위별로는 각각 삼겹살이 5천980톤(전월 5천509톤), 목심 1천95톤(전월 883톤), 갈비 1천26톤(전월 919톤), 앞다리 211톤(전월 76톤), 등심 23톤, 안심 12톤, 기

타 166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가별로는 8, 9월에 이어 칠레산 수입물량이 1천853톤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1천201톤, 벨기에가 1천65톤, 오스트리아 750톤, 네덜란드 729톤 등으로 많았다.

제주도, '양돈산업 발전기금' 조성

제주도는 11월 4일 양돈협회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전 양돈농가들의 동의 아래 양돈자조금과는 별도로 '양돈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두당 300원씩을 거출해 27억원의 양돈산업발전기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 발전기금은 제주산 돼지고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처리,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 및 질병발생 억제를 위한 청정화 유지,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 기술 지원 등 제주도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간부전증 환자에 돼지 간 활용

국내 연구진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동물 장기를 이용한 간 보조장치를 개발했다. 동국대 박정극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와 부경대 김성구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이석구 교수, 바이오 업체인 라이프코드와 공동으로 돼지의 간세포를 활용한 '간세포 구상체 반응기'를 개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치료법은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 인공투석기를 통해 혈액을 정화하는 것과 같이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신장투석기가 이온교환물질 등을 투입하

「유재일의 돈사 환기백과」 단행본 출간



월간 피그플러스·
도서출판 아힘(대표 :
이교훈)은 환기 분야의
새로운 지침서가 될
「유재일의 돈사 환기
백과」 단행본을 출간하
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환기 및 시설분야에 관련된 서적들의 출판이
저조했던 가운데 양돈농가들의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양
돈장에 적용,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 증대에 일조하자는 기획 아래 출간되
는 '유재일의 돈사환기 백과'는 체계화된 환
기 및 시설분야 전문서적으로 양돈가의 기대
를 얻고 있다.

저자인 유재일 위원장은 국내 환기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현장과 이론을 두루 겸비하
였다. 그동안 축산종합개발원 교수를 역임하
고 그 후에는 한국양돈컨설팅그룹 컨설턴트
로서 전국 각지의 양돈현장을 방문하며 환기
및 시설 분야에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총론 ▶돈사 자연환기 ▶돈
사 기계식환기 ▶웬과 웬 보조설비(장치)의
선정과 관리 ▶고온·다습 환경에서 환기와
환경관리 다섯 가지 주제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환기설계 중요 기준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저자 : 유재일 위원장 ▲사이즈 : 신국
판 240쪽 ▲책값 : 12,000원 ▲문의 : 02)474-
4746

는 물리적 방법이라면 이번 개발은 실제 동물
의 간세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창섭 과장의 양돈방역의 정책방향에 대한 발
표를 시작으로 돼지콜레라 검사현황, PMWS,
PED 등 질병분야와 건강한 자돈 만들기, 물과
돼지사양관리 등 사양관리분야로 나누어 주제
발표를 했다.

제4회 한국양돈수의사회 세미나 성료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이원형)는 11월 11
일부터 12일까지 경기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제4회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를 개최했
다. 전국 양돈현장 및 업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150여명의 양돈수의사들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자돈폐사율 감소방안'에 대한 여러 가
지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

11월 12일 정계산에서 '축산인 등 반대회' 열려

축산신문사가 축산인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인 등반대회'가
11월 12일 아침 9시부터 서울 정계산에서 개최
됐다. 이날 등반대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축산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양돈**